13 주차 학습

1교시 학습 키워드 – ● 비교정태이론  
● 동태이론 : 필립스곡선

●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설명하는 비교정태이론을 분석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설명하는 동태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1. 비교정태적 이론  
● 수요견인설(AD의 이동: IS or LM)  
- 제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비용인상설(AS의 이동)  
- 임금율이나 이윤율의 인상, 원자재가격의 상승(예: 국제유가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함  
  
2. 동태이론  
● 필립스곡선  
실업률(u)이 낮을수록 화폐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π)이 높으며, 반대로 화폐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음  
-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 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없음을 의미함  
● 프리드만의 모형  
- 노동의 초과수요→실질임금(명목임금이 아님)상승, 고용증가(실업률 감소)→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고용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실업률, 프리드만)로 복귀(필립스 역관계는 단기현상)  
● 루카스의 모형  
-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trade-off)는 존재하지 않음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보다 가파르다.  
2.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3.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 필릅스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4.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물가(인플레이션)와 일자리(실업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는 영국 경제의 실증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 사이에는 마이너스 상관관계(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 필립스 곡선이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필립스 곡선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즉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진다. 경제정책이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연실업률(자연실업률이란 구조적 실업을 포함한 광의의 마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긴축정책(인플레이션 갭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은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상,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O

긴축정책(인플레이션 갭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은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상,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2교시 학습 키워드 - ● 금리결정이론  
● 금리의 기간구조  
● 금리변동요인

● 금리결정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 금리의 기간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 금리의 변동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1. 금리결정이론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등 금리의 종류에 대한 개념과 채권가격과 이자율과의 관계를 정립함  
● 금리결정 이론에서 대부자금설, 유동성선호설(케인지언), 피셔효과(Fisher effect), Tobin-Mundell의 실질잔고효과 등의 개념의 차이점을 비교함  
2. 금리의 기간구조  
● 기대가설  
- 채권간의 완전대체성 가정  
● 시장분할가설  
- 각 채권 만기별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가 달라진다는 이론임  
→ 일반적으로 상기 2개의 가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함  
→ 채권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도 높아지게 되는 우상향의 모양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예외가 아님  
● 특정시장선호이론  
- 장단기 채권간의 불완전한 대체관계를 가정하여 기대가설과 시장분할가설을 결합한 형태임  
3. 금리변동요인  
● 기초적 요인  
- 경기, 인플레이션, 통화공급, 국제수지, 환율, 국제금리 등을 들 수 있음  
● 제도적 요인  
- 자본자유화  
- 금리자유화  
● 계절적 요인  
- 세금납부  
- 명절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장 상황은?  
1. 물가가 상승할 때  
2. 금 가격이 상승할 떄   
3. 코스피지수가 상승할 때  
4.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떄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다. 채권은발행 당시에 보유자에게 돈을 상환하는 시기인 만기일,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금인 액면가, 정해진시기마다 지급하는 이자 등이 정해진다.채권은 액면가대로 팔리지 않는다. A라는기업이 연 5%라는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자. 단 이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조달금리는 연 10%다. 이 경우 사람들은 직접 A기업에대출을 해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액면가대로 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채권가격은 이자와 원금으로 구성된 ‘미래소득흐름’에 A기업의 조달금리와 같은 연 10%의할인율을 적용해 구한 현재가치까지 떨어진다. 채권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거꾸로조달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가격은 액면가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조달금리는 채권의 수익률과 같다. 그리고 채권가격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낮다. 채권가격은시중 이자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소득흐름의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따라서시중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된다. 물가가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코스피지수가 상승하면 채권시장에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A는 은행 저축예금에 10만원을 예금하였다. 단, 은행저축예금의 1년 동안 복리 이자율은 10%이며 6개월 마다 지급된다. A가 1년 후 저축예금 만기에 받을 이자금액의 한계는 1만 250원이다. ~~O~~

이자계산법에는 복리와 단리가 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되지만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에 이자를 계산한다. 10만원 예금의 복리 이자율이 10%이고 6개월 마다이자가 지급될 때, 6개월 후 이자는 10만원×10%×(6개월÷12개월)로 5000원이다. 다시 6개월이 지난 후 이자는 10만5000원×10%×(6개월÷12개월)로 5250원으로 만기에 받을 총이자는1만250원이다.